

# 엘리베이터 도입 100주년



신 윤 영  
오티스 홍보팀 차장

1883년, 미국을 방문한 민영익, 유길준 등 8명의 건미사절단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였다. 도착 후 이들은 당시 세계 최고의 호텔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팰리스 호텔에 묵게 되어, 아주 작은 방에 안내되었다. 사절단 일행은 작은 방을 배정 받아 심란하던 차에, 갑자기 그 방이 위로 솟구쳐 올라 지진이 난 줄 알았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경험담이다. 이후, 그들은 결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오르내렸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이다.

미국으로 가는 기선 안에서 이미 서양식 생활을 익히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엘리베이터라는 물건이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1896년 민영익의 사촌인 민영환의 세계 일주 기행문인 <해천추범>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탄 후의 소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5층 높이에 넓게 트인 집이었는데 오르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을 헤아려 아래층에 한 칸의 집을 마련하여 전기로 마음대로 오르내리니 기막힌 생각이다”

서양의 앞선 과학 기술을 보고 놀랐을 마음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라는 사실에 더욱 감탄을 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야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당시 우리 선조들은 엘리베이터를 악마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용품 쯤으로 여겼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1910년 조선은행 (현, 화폐금융박물관) 빌딩에 설치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일본 Otis 社の 자료에 ‘1910년, 당시 유명한 건축가였던 다쓰노 긴고 박사가 설계한 조선은행 빌딩에 화폐 운반용 수압식 엘리베이터와 요리 운반용 수동식 리프트가 설치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엘리베이터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0주년, 즉 1세기가 되는 해이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아시아를 상대로 무역하는 미국계 회사를 통해 미국의 Otis 社로부터 직접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이후,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1914년 철도호텔 (현, 웨스틴 조선호텔)에 설치되었다. 엘리베이터라는 문명의 이기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수직 운송수단 (first vertical railroad)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금빛으

## ○ 기획 특집

로 장식된 엘리베이터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황금새 (Golden bird) 같다”면서, “수직으로 뻗은 철도” 라고 화자 되었다고 한다.

엘리샤 그레이브즈 오티스 (Elisha Graves Otis)가 1853년 세계 최초로 안전장치가 부착된 엘리베이터, 즉 현대적 의미의 엘리베이터를 발명하면서, 엘리베이터는 건축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00년대 초, 이미 미국의 뉴욕에서는 초고층 빌딩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엘리베이터 덕에 오늘날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발명 이후, 서양으로부터 반 세기 늦게 엘리베이터라는 신기한 물건이 들어왔지만, 지금 한국의 엘리베이터 시장 규모 및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40만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설치규모 25,000여대로 세계 5위권 이내이다.

한국의 엘리베이터 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우수한 인력들의 꾸준한 연구 개발로 국산화 과정을 거쳐, 핵심 독자기술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이제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전기로 움직이는 서양 문물이 아닌 것이다. 현재, 한국의 Otis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으로 ‘Made in Korea’ 기술력을 세계로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로 수출되는 한국 産 휴대전화, 자동차 등과 함께,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이동에 사용한 전기를 빌딩 측에 되돌려 주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서비스와 IT를 결합,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자체 점검을 하고, 원격으로 보고하는 ‘Elite Service’ 라는 똑똑한 서비스를 런칭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첨단 원격제어 시대를 열었다. 이 분야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 고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의 발명은 ‘안전한 엘리베이터’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엘리베이터 도입 100주년을 맞이하여, 건축빌딩의 고층화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함으로써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엘리베이터 산업이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열망을 다시 한 번 품어볼 때가 되었다.

Otis社가 이미 19세기부터 세계 각국의 엘리베이터 산업의 출발을 선도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100년 이후 엘리베이터 산업의 미래는 꿈꾸는 자들에게 달려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KEA



〈1920년대 조선은행〉